

# 일본의 1992년 통신백서

譯/황인영/ 자문위원

일본 우정성은 1992년의 「통신백서」를 6월 2일의 각료회의를 거쳐 공표하였다.

이번 「통신백서」에는 1장에 1991년의 정보통신의 현황을, 2장에서는 정보통신정책의 동향을, 3장에서는 ‘낙착함과 활력이 있는 정보사회의 형성과 전파이용’을 테마로 하여 풍요로움을 다같이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을 실현시키기 위해 앞으로 전파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하 백서의 요점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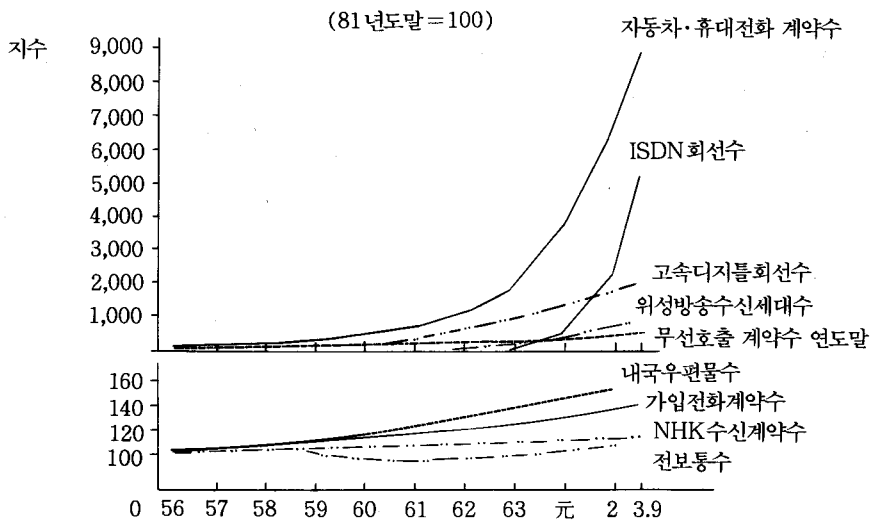
국내(일본)통신서비스의 동향을 살펴보면 전

기통신분야에서는 자동차, 휴대전화서비스 계약수, 고속 디지털 전용선서비스 회선수, ISDN 서비스 회선 등이 계속 큰 신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의 제공, 통신요금의 인하 등으로 전기통신 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다.

방송분야에 있어서는 하이비전(Hi-vision) 시험방송의 개시,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의 개시 등으로 멀티미디어, 다채널 시대를 맞고 있다.

우편분야에 있어서는 우편물수가 착실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국내통신 동향



(주) 1. 고속디지털 회선수는 1986년말, 위성방송수 신세대수는 1987년말, ISDN 회선수는 1988년말을 100으로 함.

2. ISDN 회선수는 기본 인터페이스(INS NET 64)의 회선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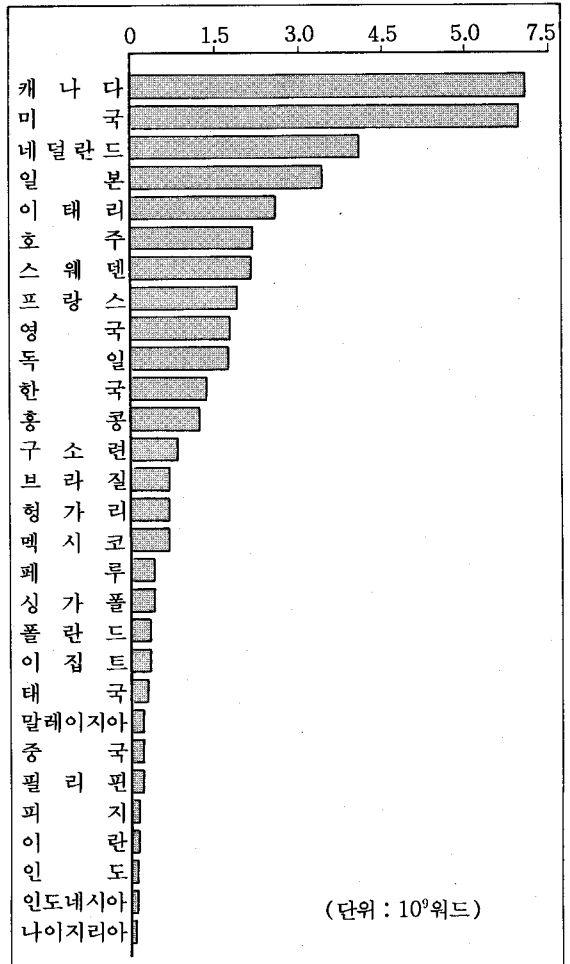
〈그림 1〉의 국제통신서비스의 동향을 보면 전기통신분야에는 국제전화서비스의 취급수, 국제전용회선서비스의 중·고속 부호 품목의 제공회선수 등이 호조를 보이며 증가함과 동시에 국제 VPN 서비스와 인말셋(Inmarsat) 위성을 이용한 국제선항공기로부터의 국제전화 서비스의 개시 등, 서비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방송에서도 그것은 확충과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경제의 동향에 있어 통신사업자의 신규 참가 상황으로서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는 1991년 중에 위성계 신규사업자와 새로운 자동차·휴대사업자 각 1개 회사로 합계 2개 회사가 참가하므로써 연말에는 70개사가 되었다.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1991년 11월말에는 1000개 회사를 돌파하였고, 연말에는 1,023개사(전년말 대비 89개사 증가)로 되었다. 통신시장의 경영 동향을 보면 1991년 상반기의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수익은 3조2,182억엔(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4.9% 증가)으로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성장을 이룩하였다.

일본 우정성은 일본 국내의 정보화의 동향을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정보통신센서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의해 이번이 계량적으로 실시한 나라별 정보유통의 동향조사에 의하면 1990년의 공급정보량(일본을 포함한 주요 30개 국가의 합계)은 1980년에 비해 1.83배 증가하였다. 1990년의 국민 1인당 공급정보량은 캐나다가 최대이고 미국, 네덜란드, 일본순으로 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선진공업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해 보면 격차가 있기는 하나 근래 10년간에 그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은 국민생활·산업경제의 육구의 다양화·고속화에 바르게 대처하고 전기통신 격차 시정 사업 등 지역정보화정책, NTT의 문제에 관한 정부조치의 추진 등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과 다채널 시대에 있어서 방송환경의 정비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림 2〉 국가별 국민 1인당 공급정보량(1990년)



전파는 통신이나 방송을 비롯한 폭넓은 분야에서 이용되어 가고 있어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국민생활의 충실과 지구촌시민시대를 향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한편 최근의 주파수자원의 부족에 따라 유한한 희소 자원인 전파의 유효한 이용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이 필요하게 됐으며, 1993년에는 전파이용료제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더욱 바람직한 전파이용환경의 창설을 위해서 모든 국민의 전파이용에 관한 지식과 윤리의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